

第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臨時會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日 時 1991年7月24日(水) 午後2時30分 開式

第4回鍾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 會 辭
6. 閉 式

(司會：議事係長 韓相殷)

(午後 2時30分 開式)

○議事係長 韓相殷 지금으로부터 第4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壇上의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하여 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시겠습니다. 前奏曲에 따라 1節만 齊唱하시겠습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그리고 區廳에서 이 자리에 陪席하신 庾來鳳 副區廳長과 각 局長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날 7月 24일은 이 땅에 풀뿌리 民主主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地方自治의 基礎議會가 開院된 그 날을 기점으로 꼭 100日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날에 鍾路區議會 第4回 臨時會를 開會하게 된 것을 매우 의의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 鍾路區議會는 그동안 다소 迂餘曲折도 있었습시다하는 議員 여러분께서 이를 슬기롭게 克服하여 주시고 또 議員 여러분은 물론 우리 鍾路區議會에서도 廣域選舉가 끝날 때까지는 차분히 實利的인 입장에서 活動해 왔다고 自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鍾路區民이 輩出한 세분의 市議員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區廳當局의 幹部和 같이 相見禮를 겸하여 鍾路區 發展은 물론 區民福祉增進을 위하여는 與野를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할 것을 결의한 바 있고 특히 地域洞民을 대표한 저희들을 중심으로 鍾路 3個地域 現地에서 區廳關係 高級 公務員들과 현지를 위주로 한 실질적인 懇談會를 開催하는 등 區行政遂行에 進一步한 첫 출발을 開始하게 되었음은 議員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勞苦의 첫걸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 다수의 民願 중 중요하다 인정되는 몇 건을 만족스러운 정도로 區廳當局에서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同志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계기로 더욱 더 단결하여 보다 組織的이고 活動的이며 未來指向的인 地域開發의 促進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區民들에게 당장 ‘無’로부터 ‘有’를

創造케 할 수 있는 一大變化를 안겨줄 수는 없겠습니까마는 우리 區內에서 아직까지 그들에 싸여 몸부림치고 있는 疎外階層의 住民들까지 鍾路區에서 居住하는 보람을 느끼고 보다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未來에 대한 希望을 안겨줄 수 있도록 行政機關과 議會간에 항상 和음을 도모하고 協調하는 가운데 住民 모두에게 진실과 친절을 근간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써 정성을 다할 수 있는 生動的이고 活動的인 우리 議會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議員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區民 모두의 각 가정에 항상 健康과 多福하심은 물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 더 繁昌하시고 하느님의 따뜻하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祈願드리면서 저의 開會辭를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議事係長 韓相殷 이것으로 第4回 鍾路區 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午後 2時36分 閉式)